

익산시, 정부에 핵심 현안 지원 요청

김민석 국무총리 · 김윤덕 국토부장관, 익산 방문… 주요사업 현장 점검

정현을 시장, 전라선 고속화 · 익산역 개선 · 광역철도 등 핵심 현안 설명

익산시가 정부 핵심 인사 방문에 맞춰 지역 핵심 현안을 강력 건의했다. 익산시는 지난 5일 익산 현장방문에 나선 김민석 국무총리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해 직접 설명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을 공식 요청했다. 이날 오후 익산시 왕궁면에 위치한 국가식품클러스터 청년식품창업센터를 방문한 김민석 총리는 청년 창업기업들을 격려하고 식품산업 현장을 점검했다.

시는 총리 방문에 맞춰 △익산-여수 전라선 고속화 사업의 조속한 추진 △KTX익산역 대규모 시설개선 △전북권 산재전문병원 건립을 위한 2026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선정을 공식 건의했다.

‘익산-여수 간 전라선 고속화 사업’은 지난해 12월부터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이다.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후에도 본격적인 공사추진은 2030년이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사업 지연에 대한 전라선 권역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사업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속한 추진 필요성이 지속 제기돼 왔다.

또한 현재 노후된 익산역의 대규모 시설개선을 통해 증가하는 승객 수요에 대응하고, 복합환승 거점 기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국비 투입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산업재해 대응 거점병원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북권 산재전문병원 건립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2026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 포함시켜줄 것을 건의했다.



정현을 익산시장(가운데)이 익산역을 방문해 철도 기반시설 점검에 나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왼쪽)과 함께 현장 설명하고 있다.

이날 김윤덕 국토부장관은 익산역을 방문해 철도 기반시설을 점검했다. 시는 이 자리에서도 김 장관을 대상으로 지역 핵심 교통 현안을 다시 한번 강도 높게 설명하며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건의한 사업은 △익산-여수 전라선 고속화 사업 조속 추진 △KTX익산역 대규모 시설개선 △전북권 광역철도 구축사업의 제5차 광역교통 시행계획 및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익산역 서부주차장 조성사업(주차타워 건립) 등이다.

익산역은 호남선·전라선·장항선을 잇는 철도 거점이자, 향후 새만금 배후도시의 핵심 역할을 수행할 여이다. 이에 따라 시는 환승 편의성 확보, 노후시설 개선, 연계 교통체계 정비를 포함한 종합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시는 KTX이용객 증가와 함께 주차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총 4층, 연면적 3만2,000㎡ 규모의 서부 주차타워를 건립해 줄 것을 국토부에 제안했다.

김윤덕 장관은 “익산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속히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익산 시민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익산은 교통과 식품, 의료 기반까지 지역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큰 틀을 갖추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익산의 성장 기반을 확실히 다져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시는 이번 건의를 계기로 각 사업의 예산 반영과 제도화를 위해 관계 부처와 지속적인 후속 협의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익산=이재춘 기자

장애인복지 잘하는 익산시, 3관왕 달성

전국 장애인복지사업 평가서 2년 연속 ‘최우수기관상’ 수상

장애인 개인예산제 ·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도 장관상

익산시가 장애인복지정책 추진 우수성을 인정받아 보건복지부 장관상 3관왕을 달성했다. 익산시는 지난 5일 보건복지부 주관 ‘2025년 전국지방자치단체 장애인복지사업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아울러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과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추진 성과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았다.

특히 장애인복지사업 평가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최우수상 수상으로 장애인복지 선도 도시임을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사업의 효율적 추진 기반 조성과 지역 장애인복지 수준 향상을 위해 2020년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평가는 △자립 지원 △서비스 지원 △복지 전달체계 △우수사례 등 4개 분야, 12개 항목을 중심으로 이뤄지며, 익산시는 장애인의 교육기회 확대와 정서 안정, 건강 증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시는 전북특별자치도 최초 단설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증장애인이 자연에서 휴식할 수 있는 숲 산책로와 쉼터를 조성하는 등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있다.

아울러 장애인의 자립과 지역사회

정착,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들도 좋은 평가를 이끌었다.

시는 장애인 탈시설 및 자립생활지원을 위한 5개년(2025~2029)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익산형 자립주택 보증금 지원사업을 운영해 재가 장애인의 주거 부담을 줄였다.

이와 함께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장애인종합민원실 및 무료직업소개소를 운영해 상담부터 구직 연결까지 지속성 있는 일자리 지원 기반을 마련했다.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익산시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정책 추진 성과도 인정을 받았다.

시는 전복에서 유일하게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을 선제적으로 시행해 지자체 · 공무원 · 재공기관 등 총 4개 부문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았다. 개인예산제는 장애인이 스스로 원하는 복지서비스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또 장애인의 주거결정권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지역사회 진입을 돕는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에서도 수상이 이어져, 올해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총 3개 장관상을 받는 성과를 거뒀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행복한 익산시를 만들기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시지역건축안전센터 출범 1년

건축행정 전문성 높였다

군산시는 현재 운영중인 군산시 지역건축안전센터(이하 ‘센터’)가 관내 건축물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와 건축행정의 전문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지난 2024년 8월 문을 연 센터는 건축공사 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전문적 · 상시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건립됐으며, 현재 건축구조 · 품질관리 · 시공 분야의 전문 인력을 배치해 기술 지원과 현장 지원을 수행하고 있다.

출범 이후 센터는 △해빙기 대비 기반 안정성 점검 △우기철 배수계획 및 가시설 안전성 확인 △동절기 위험요인 사전 점검 △분기별 정기 현장점검 등을 실시하였으며, 총 17회 차에 걸쳐 30개 현장을 대상으로 점검을 완료했다.

특히 해빙기, 우기 등 계절적 취약시기, 공사장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해 잠재 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견 · 조치하며 사고 예방에 큰 성과를 내는 한편, 시민 안전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군산=김만호 기자



군산시의회, 제3차 본회의서 2025년도 추경예산 등 상정

핵융합 핵심기술 개발 등 명세서 채택… 물품관리체계 부실 문제 관련 시정질문도

군산시의회(의장 김우민)는 5일 제 279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등 2건의 부의안건을 상정했다. 이날 상정된 2025년도 제3회 추경은 올해를 마무리하는 예산으로 제2회 추경 대비 129억7,500만원(△0.7%)이 증액된 1조8,639억8,900만원의 예산이 상정됐다.

시의회는 이번 3차 본회의를 통해 군산시가 편성한 202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각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심도 있는 심사를 할 예정이며, 2025년도 최종 예산안은 오는 10일 제279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될 계획이다.

한편, 3차 본회의에서는 김영일 · 김영단 · 한경봉 · 윤신애 · 서은식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서은식 의원의 성명서와 설경민 의원의 시정질문이 있었다.

먼저, 김영일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국비 공모에만 맞춰 추진 중인 월명국민체육센터 수영장을 비판하며, 중장기 체육진흥계획 및 매년 실시해

왔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다음으로 김영단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공사 부도로 인한 민간 임대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을 언급하며, 지자체 관리 · 감독강한 강화, 임대료 · 건설원가 산정 투명성 확보, 피해예방 및 사후 지원 체계 신속 구축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안했다.

다음으로 한경봉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군산시의 공유재산 관리 부실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며, 회계과로 모든 공유재산의 총괄 관리 책임을 일원화하며 각 사업부서가 보유하고 있는 행정재산을 즉시 이관하여 전문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촉구했다.

다음으로 윤신애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군산시가 순천시처럼 뛰어난 자연 생태계를 이미 갖추고 있으나, 사람과 생명이 공존하는 생태도시를 만들자고 발언했다.

다음으로 서은식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구 감소 위기에 대응하여 농촌 유학 정책과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연계해 다양한 형태 농촌 유학 모

델을 구축, 농촌유학과 보환할 수 있는 정책 발굴 등을 촉구했다.

이어 서은식 의원이 발의한 ‘핵융합 핵심기술 개발 및 첨단 인프라 구축사업 평가 개선 촉구’ 성명서를 가결했다.

성명서를 대표 발의한 서은식 의원은 ‘핵융합 핵심기술 개발 및 첨단 인프라 구축사업’ 부지선정 과정에 대해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며, 지난 평가 공개 및 재검토와 대형 연구단지 및 인프라 구축에 대한 선정 절차와 평가의 공정성 · 투명성 확보방안의 마련 및 제도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 설경민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군산시 물품 관리 체계 부실 문제에 대해 물었다며 △행안부 지침에서 요구한 현지 핵심 절차에 대한 실제 이행 수준 △2025년 정기재물조정의 불충인건에 대한 공식 입장 △부서 간 이동정보 미반영, 불용 미등재 등 특정 오류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 △항후 물품 관리 내부통제 강화 등 구체적 대응 전략 등을 질문했다.

/군산=김만호 기자

군산시의회 상임위, 내년도 본예산 63억2541만원 삭감

군산시 2026년도 예산안이 군산시의회 상임위원회 예산심사에서 총 66억 2,541만원이 삭감됐다.

시의회 상임위원회는 지난달 27일부터 6일 동안 면밀한 예산심사를 거쳐 당초 집행부가 요구한 1조7,999억원 예산 가운데 시급성이 떨어지거나 사업 타당성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예산 66억 2,541만 원을 삭감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했다.

이번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은 행정복지위원회의 경우 △군산3.1운동역 사형상관 건물 보수 1억8,000만원 △군산시간여행축제 2억4,000만원 △러닝공원장 노후 공조기 교체 공사 등 5억 원 △군산 교육협력지구 운영지원(시 대응금) 1억8,000만원 등 10개 사업 예산 12억8,041만원을 삭감했다.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건축허가

및 신고 업무 대행 수수료 3,000만원 △시내버스 대폐차 지원금 1억6,000만원 △광역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 홍보용 대형간판 설치 5,000만원 △공원 사유토지 매입 48억원 등 5개 사업 50억4,500만원을 삭감했다. 또한, 특별회계로는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 78억9,714만원 중 3억원을 삭감했다.

송미숙 행정복지위원장과 지혜춘 경제건설위원장은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도려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 시민의 삶에 직결되는 복지와 안전 예산에 집중 투입하도록 심사의 역할을 모았다”고 밝혔다.

한편, 군산시 내년도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19일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군산=김만호 기자

군산시의회, 오늘부터 12일간

카카오톡 채널 추가 이벤트

군산시의회(의장 김우민)가 온라인을 통한 시민 소통을 확대하기 위해 카카오톡 채널 추가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군산시의회 공식 카카오톡 채널을 활용하여 8일부터 19일까지 2주간 진행되는 이번 이벤트는 시민들에게 의정 활동 소식을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전달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참여 방법은 카카오톡 앱 검색창에서 ‘군산시의회’를 검색하거나, 이벤트 참여 QR코드를 스캔한 후 채널을 추가하여 해당 화면을 캡처 및 네이버 폼으로 제출하면 된다.

당첨자 발표는 23일 군산시의회 홈페이지와 블로그에 게시한다.

/군산=김만호 기자

지역 소식통

익산시의회, 의원 국외연수

2026년도 예산 전액삭감

익산시의회(의장 김경진)는 지난 5일 열린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조은희) 예산 심의 결과 2025년도에 이어 2026년도 의원 국외연수 예산을 전액 삭감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장기화되는 경기 침체와 세수부족 상황을 엄중하게 고려한 것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히 조정해 시민 생활 안정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의지에 따른 것이다.

특히 이번엔 전액 삭감된 국외연수 예산은 어렵고 힘든 여건에 놓인 저소득층 복지 지원 분야에 투입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과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김경진 의장은 “지금은 어느 때보다 재정의 효율적 운영이 중요하다. 국외연수보다는 시민들의 어려움을 돌보는 일이 우선이라는 판단 아래 예산 전액을 삭감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와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익산=이재춘 기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과

함께하는 타운홀미팅

군산시가 지난 5일 군산시 어린이공원장에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과 함께하는 타운홀미팅’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보육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시정에 대한 궁금증과 건의 사항에 대해 시장이 직접 답변하는 현장 중심 소통행정의 하나로 마련되었다.

관내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직원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참가자들은 △‘아이행복도시 군산’ 관련 주요 정책 △보육교직원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안 △대체교사 확대 지원 방안 등 평소 어린이집 운영 과정에서 느껴온 애로사항을 허심탄회하게 밝혔다.

이에 김만준 시장은 “우리 아이들을 돌보는 보육교직원 여러분의 목소리는 군산시 보육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라며,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보육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인식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군산을 만들어가겠다.”라고 약속했다.

/군산=김만호 기자

호원대 RISE사업단

Healthcare 리빙랩 운영

호원대학교(총장 강희성) H-산업보건헬스사업단은 지난 5일,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의 일환으로 ‘2025 산업체군로자 근골격계 및 심뇌혈관계 Healthcare 리빙랩(방문형)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형 리빙랩은 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새만금에 위치한 세아씨업을 거점으로 총 9개 협력 기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호원대학교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스포츠무도학과, 음극구조학과, 치위생학과 등 5개 학과의 학생과 교수, 사업단 직원이 직접 현장에 참여하여 전문성을 제공했다. 운영된 프로그램은 근골격계와 심뇌혈관계의 두 가지 분야에 집중되었다.

정희봉 RISE사업단장은 “새만금 산업체 군로자의 건강권을 강화하고 지역 산업계와의 지속적인 협력 기반을 확장하는 의미 있는 사례였다”고 밝혔다.

/군산=김만호 기자



지역과 함께한 나눔, 익산의 내일을 밝힌다

나눔의 날 행사 개최… 나눔 주인공 40여 명에 표창장

유림화학 김석주 대표, 이웃 위한 성금 1000만원 기탁

익산시가 지역 곳곳에서 나눔을 실천해 온 시민들과 함께 지역공동체의 가치와 의미를 되새겼다. 익산시는 지난 5일 원광보건대학교 WM관 컨벤션홀에서 ‘2025년 나눔의 날’을 열고 한 해 동안 나눔과 봉사를 실천한 시민과 단체에 감사장을 전했다.

이번 행사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묵묵히 활동해 온 공로자들을 격려하고, 익산시가 추진해 온 복지 나눔 활동의 성과를 공유하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이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내일을 밝히는 큰 희망’을 주제로 진행된 행사는 유공자 표창과 함께 성금 기탁이 진행돼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유공자 표창은 희망복지지원사업과 읍·면·동 맞춤형 복지 활성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한 개인 · 단체

40여 명이 ‘올해의 나눔 주인공’으로 선정돼 감사패와 표창장을 받았다. 또한, 지역 기업 ‘유림화학(대표 김석주)’이 1,000만 원을 기탁해 감동을 더했다. 성금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저소득 가구 지원에 사용돼 지역사회 곳곳에 나눔의 온기를 전할 예정이다.

시는 나눔문화 확산과 지역사회 협력을 통해 보다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다.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나눔 체계 구축에 힘을 계속 이다.

/익산=이재춘 기자